



500승에 이어 600승까지 함께 달성한 아버지와 아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의 이희영 조교사, 600승을 선물한 이혁 기수. '굿루루(사진 오프쪽부터)'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부자(父子)의 다음 목표는 700승이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아들아, 700승까지 함께 달리자”

이희영 조교사 데뷔 30년만에 600승

아들 이혁, '굿루루'와 함께 600승 선물
이희영 “좋은 경주마 확보에 주력할 것”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활약 중인 이희영 조교사(56)가 데뷔 30년 만에 600승을 달성했다. 2012년 500승에 이어, 이번에도 아들 이혁 기수(29)가 아버지에게 감격스런 선물을 안겼다.

모든 상황이 2012년 2월12일과 비슷했다. 좀처럼 우승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었지만 이혁 기수는 지친 말을 다독이며 막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2위 경주마와의 차이는 3/4마신에 불과했다. 아버지에게 500승을 선물했던 아들은 그렇게 4년 10개월 만에 600승을 안았다. 이희영 조교사는 “인기마도 아니고, 센 말들도 많았는데 1등으로 들어왔다. 500승 때도 우승을 기대하기 힘들어 기쁘보다 놀라움이 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라고 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교사로서 아들이 600승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은 늘 있어왔다. “이혁에게 수차례 ‘네가 600승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럴 경주마가 당장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600승을 달성한 ‘굿루루(미국·3세)’는 장기 휴양 이후 8개월 만에 출전하는 말이었다”고 당시를 복기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낸 이혁 기수의 우승 순간을 복기하면서 아버지 이희영 조교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희영 조교사는 기수로 먼저 경주마 땅을 밟았다. 1976년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에 경마에 데뷔하며 많은 이목을 끌었다. “당시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기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물론 그런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했다.

조교사로 전향한 것은 10년 뒤인 1986년 27세 때였다. 기수생활을 하며 입은 부상과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조교사로 이끌었다. “(기수로 활동하면서) 워낙 많이 다쳤다보니 조교사 시험을 준비할 때 정작 부모님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털어놓았다. 조교사 데뷔 다음해인 1987년 명마 ‘청하’와 함께 그랑프리를 제패하며 명 조교사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많은 말과 기수를 만나 좋은 추억과 기록을 쌓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기수 데뷔를 마냥 반기지 않았다. “아들까지 고생시키려고 그러냐”며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도 기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했다. 2016년이 가기 전에 큰 선물을 받은 이희영 조교사의 내년 목표는 경주마의 원활한 수급이다.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좋은 경주마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좋은 경주마를 더 확보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보겠다. 여러 마주들이 힘을 보태겠다. 특히 서순배 마주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마방식구들과 늘 응원해주는 경마팬,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했다”고 했다. 700승도 아들 이혁 기수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희영 조교사는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충건 기자 marco@donga.com

랫츠런파크 서울, 새해 첫 달 72개 경주 펼친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이 2017년 1월 경마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첫 달에는 3주 6일에 걸쳐 총 72개 경주가 펼쳐진다. 국산마 경주 51개, 혼합경주 14개다. 나머지 7개 경주는 국·

외산마 통합경주다. 토요일의 경우 7일에는 15개 경주가, 14일과 21일에는 12개 경주가 시행된다. 일요일인 8일, 15일, 22일에는 11개 경주가 진행된다. 랫츠런파크 서울은 1월 사흘의 경마 휴

장일이 있다. 새해 첫날은 동계 휴장일이고 28~29일은 설 연휴를 맞아 경마를 휴장한다.

1월 대상경주는 문화일보배(1200m, 4세 이상)가 22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다. 총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새해를 기념해 ‘새해맞이 기념경주(2등급 경주)’가 7일 명칭부여 경주로 시행된다. 김충건 기자

★최우수 ○우수 ○양호 ▲선대 ※도전
출마표는 한국마사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제공: 경마분석(서로필, 유준상, 정영호)

토요일경마 출마표 | 24일

서울 경마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1경주 (1000M) 국6 별정C 일반 발주:10:50										
1	미레들불	암	54	문세영	지용철	선행	양호	▲	◎	★
2	카이젠	암	52	박병운	최영주	선입	양호	◎	▲	
3	사카글로리	암	52	페로비치	이관호	추입				
4	쿠즈	암	52	부민호	김학수	추입				
5	송리대	수	54	조성근	김순근	선입	◎	◎	◎	
6	아미조네스	암	52	유승환	이신영	선행	◎	◎	◎	
7	비바글라피	수	53	정정호	송문길	선입	보통			
8	베레라리아	수	54	윤태혁	김동철	추입	우수	▲	★	◎
9	로이얼링	거	51	하정호	박천서	선행	◎	◎	◎	
10	아주패왕	거	54	이동국	지용훈	선입	양호			
11	행복마루	암	52	방준식	박희철	추입	보통			
12	퍼스트지	암	52	황순도	김동균	선행				
제2경주 (1000M) 국6 별정A 일반 발주:11:15										
1	골드시나	암	53	할완식	서홍수	추입	양호	◎	◎	▲
2	민앤	수	55	안호리	심승태	선입	보통			
3	로열비체로	암	54	유승환	최유근	선행	양호	◎	◎	◎
4	뉴비어리	암	53	박윤은	김동균	선입				
5	윈다라이트	암	53	문세영	최상식	선행	우수	★	★	★
6	창성일호	수	53	이기원	박병철	선입				
7	루이반	수	55	이혁	홍대우	선행				
8	매키의후지	암	53	박병운	하재홍	선입				
9	한일맥시	수	55	이준철	김대근	선입	▲			
10	속북의열매	암	53	박현우	지용철	추입	보통			
11	스카기비	암	53	조인권	양희진	자유				
12	수성행트	수	55	조성근	박종근	선입				
제3경주 (1300M) 국6 별정A 일반 발주:11:40										
1	트리스티미	수	57	안	이신영	선행				
2	오프로비트	암	53.5	이준철	김대근	선입	▲			
3	신크로스	거	57	김정준	심승태	자유				
4	레펠루	수	55.5	김해선	박종진	선행	우수	◎	★	◎
5	해바	암	55	윤태혁	황영원	선입	◎			
6	유로캡트	암	55	박현우	김동균	선입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4경주 (1000M) 국5 별정A 일반 발주:12:20										
1	최고이치고	암	52	김태호	박재우	선행	우수	◎	★	◎
2	달앤리	수	54	박준우	지용철	선입				
3	탄성연발	암	51	황준우	박종진	추입	▲			
4	반패왕	암	52.5	박시현	김양선	자유				
5	자성군주	암	52	이상혁	정지은	선행	양호	★	◎	▲
6	급시우	거	52	이혁	이희영	선입	◎			
7	창영로즈	암	52	이아나	안혜영	추입				
8	첼피아트	암	52	안호리	안혜영	추입	양호	◎		
9	해가네	암	56	이기원	김정오	선입	보통			
10	네메르티드	암	51	방준식	지용훈	추입				
11	사계절	암	54	김해선	최유근	자유	보통			
12	선오	암	52	이기원	하재영	선입				
제5경주 (1300M) 국5 별정A 일반 발주:13:25										
1	노머시	수	54.5	이기원	하재영	추입				
2	클린업후술	암	53.5	할완식	김동균	선행	양호	★	◎	◎
3	골디어스	암	53.5	이동국	손영표	선행	양호			
4	세이펜	암	54.5	안호리	심승태	선입	우수	★	▲	◎
5	니트루	수	55	지하주	김대근	선입				
6	선빅터	수	53.5	황준우	서병서	추입	보통			
7	주국성	암	53	장준영	배대선	자유				
8	농부송리	암	52	최원준	김영주	선입				
9	리얼프로	암	51.5	방준식	지용훈	추입	보통	▲	▲	★
10	세라피스	수	55.5	방준식	지용훈	선행				
11	블랙포인트	암	53	문세영	서홍수	선입				
제6경주 (1300M) 국5 별정A 일반 발주:14:10										
1	림	암	52	방준식	지용철	추입				
2	케이마운틴	거	57	조성근	하재홍	선행				
3	클룩스	암	53.5	김정준	서병서	선행	보통	◎	▲	★
4	베트페타	암	52	유승환	하재영	선입				
5	매번릭	거	53.5	박병운	최상식	선행	◎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7경주 (1300M) 국5 별정A 일반 발주:14:35										
1	라이언워너	암	52	윤영민	김동철	선행	보통	★	▲	▲
2	델타	암	53	조성근	양재철	선행				
3	공구대로	거	53.5	최병철	우정근	추입				
4	케이	수	53.5	장준영	배대선	선행	보통	◎	◎	◎
5	레논	암	53	페로비치	최영주	선입				
6	캐슬안주	암	52.5	이동국	정윤희	선행	양호	◎	◎	★
7	토호링	거	55	할완식	김동균	추입	우수	★	★	◎
8	엘베르데	거	57	조재로	배용준	추입	양호	◎	◎	◎
9	엘리고드림	거	53.5	방준식	광영호	추입				
10	피파이어	암	51	부민호	박희철	선입				
11	피파이어	수	53.5	김해선	최유근	추입				
12	비바글라피	암	52	이기원	김학수	자유				
제8경주 (1300M) 국4 별정A 일반 발주:15:00										
1	최고이치고	수	53.5	조성근	양재철	선행				
2	페로비치	수	51	부민호	박희철	추입				
3	그레이트스	암	52	문세영	이신영	선행	우수	★	★	◎
4	선더라이트	수	54	윤태혁	우정근	선입	양호	◎	◎	◎
5	유리드	수	54	안	안병기	추입				
6	벨사인	수	53.5	최원준	김동균	추입				
7	월렛	암	51	정정호	홍대우	추입				
8	속북강자	거	51	방준식	배용준	추입				
9	창영로즈	거	52.5	이현중	박대홍	추입	양호	◎	◎	★
10	위즈스피드	수	52	페로비치	송문길	선행	보통	◎	▲	▲
11	나이시앵글	수	57	하정호	임봉준	추입				
12	생운강자	수	52	이혁	배대선	추입	보통			
제9경주 (1200M) 국4 별정A 일반 발주:15:25										
1	덕성일호	암	51	이혁	홍대우	선행	보통	◎	◎	◎
2	오른쪽	거	55.5	정정호	송문길	선행	양호	◎	◎	★
3	헤르만	수	55	페로비치	안병기	추입				
4	제펠	암	51	이기원	김정오	추입				
5	괴산의명성	거	52	유승환	이관호	선입				
6	로드윌	암	53	이현중	박대홍	추입	우수	★	★	◎
7	투게이	수	57	김정호	하재홍	선행				
8	프라이글드	수	56	할완식	박희철	선입	양호	◎	◎	◎
9	글래리	암	51.5	김해선	지용훈	추입	보통			
10	츄마리	암	54.5	이준철	김대근	추입	보통	▲	▲	◎

황제 문세영, 2년 연속 최우수 기수

25일 한국마사회 연도대표 시상식

올해 4차례 우승한 '트리플나인' 2관왕
2000승 달성 박태중 기수 페어플레이상



문세영 기수

한국마사회가 25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2016년 연도대표 시상식을 연다. 연도대표상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경마행사다. 그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경주마를 기리고, 우수 조교사와 기수를 선정해 경마관계자의 자

금심을 높이고자 해마다 개최된다. 올해 연도대표 시상식은 크리스마스에 랫츠런파크 서울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낮 12시20분부터 진행된다.

이양호 마사회장을 비롯해 김영규 부회장, 강석대 서울마주협회장 등 마사회 임직원과 유관단체장이 참석한다. 시상부문은 총 9개다. 부문별 수상자는 21일 확정됐다. 올해 경주성적을 바탕으로 연도대표마 '트리플나인'을 비롯해 최우수 조교사(송문길), 최우수 기수(문세영) 등 총 12명의 수상자(관련 표 참조)를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트리플나인(한국·수·4세)'이다. 지난해 연도대표마·최우수국산마를 동시에 석권한 이어, 올해도 두 개 타이틀을 가져갔다. '트리플나인'은 대상경주 5개를 포함해 올해만 8개의 경주에 출전, 4차례 우승을 차지하고 준우승 3회, 3위 1회를 기록했다. 12월 그랑프리에서 서울 최강자 '클린업조이'에게 승리를 내줬지만 올 한해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수득상금에서 '클린업조이'를 따돌렸다. 팬들의 사랑도 '트리플나인'의 수상에 힘을 보탤었다. 올해 그랑프리 출전마 인기투표 당시 서울과 부경을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연도대표마 선정기준에는 고대 인기투표 결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랫츠런파크 부경은 2013년 '경부대'로 2014년 '인디밴드'에 이어 4년 연속 연도대표마를 배출했다.

최우수 조교사와 기수에는 송문길 조교사와 문세영 기수가 각각 선정됐다.

2016년 연도 대표상

시상분야	수상자
연도 대표마	트리플나인(최병부 마주)
최우수 국산마	트리플나인(최병부 마주 /이시돌협회 생산자)
퀵스투어 시리즈 최우수마	빛의정상(이일구 마주)
주비나일 시리즈 최우수마	파이널보스(김선식 마주)
올해의 공정대상 (조교사/기수)	오문석 조교사(부경) / 문세영 기수(프리)
최우수 조교사·기수	송문길 조교사(40조) / 문세영 기수(프리)
최우수 관리조	서인석 조교사(33조)
기수 신인왕	